

구혜선-안재현 “결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배우 구혜선(35)과 안재현(32)이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러나 안재현과 소속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달리 구혜선은 이혼 결정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재차 밝히는 등 심경 변화를 보여 양측이 완전히 정리하기까지는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8일 “많은 분의 격려와 기대에도 최근 들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배우의 소속사로서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진지한 고민과 논의 끝에 내린 두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이를 존중하고, 앞으로 두 사람 모두 각자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날 이른 오전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린 데 대해서는 “최근 구혜선 씨는 변호사를 선임, 안재현 씨와의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안재현 씨에게 보내면서 안재현 씨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는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9월경에는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어 구혜선이 보내왔다는 보도자료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구혜선은 이 자료 초안에 “그동안 서로 사랑했고, 행복했다. 다만 그만큼 서로 간 격차가 있는 것을 점차 알게 됐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좋은 감정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각자의 길을 걷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적었다.

소속사는 “하지만 이날 새벽 구혜선 씨의 SNS 게시글을 접했고 안재현 씨와 당사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까

결혼 3년 만에 잡음 속 파경 맛을 듯 구혜선 “가정 지키고 싶다” 심경 변화



지 서로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진행된 이혼 합의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 (이혼 합의는) 사생활임에도 이전 과정을 말씀 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두 사람의 사생활이기는 하지만, 소속사로서 두 배우 모두 이번 일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구혜선이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는 내용과 구혜선이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책임지고 해 달라. 인정사정없이 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언급이 담겨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

다만 구혜선은 이 글들을 게시한 지 몇 시간 후 모두 삭제했다.

그러다가 소속사가 이혼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한 직후 재차 글을 올려 “타인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합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이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반박글을 올리며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노출했다.

구혜선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까지도 “(남편과 같은 소속사를 선택한 데는) 남편 영향이 있었다”, “안재현과 이별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언급하는 등 안재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바 있으나 결국 관계에 중지를 찍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작품 중역 직후 교제를 시작한 사실이 공개됐고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구혜선은 2002년 CF 모델로 데뷔해 ‘꽃보다 남자’ 등 여러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영화감독, 화가, 작가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다.

안재현은 모델 출신으로 ‘패션왕’ 등 영화와 ‘별에서 온 그대’ 등 여러 드라마, 그리고 나영석 PD의 tvN 예능 ‘신서유기’ 시리즈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tvN 예능 ‘신혼일기’를 통해 신혼 생활을 공개하는 등 애정을 드러냈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다. 한편, 두 사람의 파경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연예계는 울해만 두 차례 스타 배우 부부의 이혼 사례를 전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토크쇼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9개월 만에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 완전히 ‘남남’이 됐다.

연습뉴스

BTS, 2억뷰 뮤비 13편... ‘호르몬 전쟁’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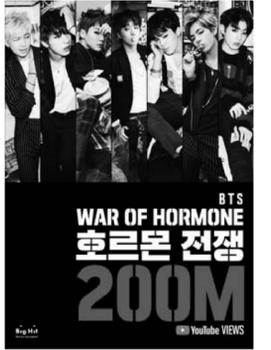
그룹 방탄소년단의 ‘호르몬 전쟁’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2억뷰를 돌파했다.

18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이 2014년 8월 낸 정규 1집 ‘다크&와일드’(DARK & WILD) 수록곡 ‘호르몬 전쟁’ 뮤직비디오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넘겼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억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통산 13편 보유하게 됐다.

앞서 ‘DNA’가 처음 8억뷰를 돌파했으며 ‘불타오르네’, ‘페이크 러브’(FAKE LOVE),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 ‘아이돌’(IDOL), ‘쩨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는 5억뷰를 달성했다.

‘호르몬 전쟁’은 강렬한 록 기타 사운드와 드림이 결합한 신나는 힙합곡이다. 좋은 팔찌는 랩이 특징이다. /연습뉴스



아하는 사람 앞에서 가슴이 뛰는 것은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는 가사와 신나게 달리듯 팔찌는 랩이 특징이다. /연습뉴스

‘의사요한’ 의학드라마의 종합선물세트

일본 히어로극 특유의 인위성·일방향 메시지는 한계

SBS TV ‘의사요한’은 의학드라마로서의 여러 요소를 균형적으로 갖춘, ‘종합선물세트’ 같은 작품이다.

놀라운 의술을 갖췄지만 내면에 아픔을 지닌 명의가 있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있으며, 갖가지 사연으로 목격한 메시지를 전하는 환자들이다. 병원 내 갈등과 명의의 고통하는 인물도 물론 등장한다.

특히 선천성 무통각증을 앓는 명의로서 주인공인 차요한(지성 분)이 행하는 놀라운 진단과 의술은 시청자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한다.

그중에서도 모두가 니파 바이러스를 의심할 때 환자 몸에 44년간 잠복한 병을 검사 장비도 없이 문진만으로 진단해내는 장면은 에피소드 중 백미였다.

하루에도 몇백명 환자가 종합병원을 드나드는 가운데 그들과 똑같은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다수 의료진이지만 임상처럼, 기계처럼 의술을 행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무통각증 환자 차요한은 존재 자체로 참

아어리니하다. ‘의사요한’은 여러 에피소드를 역동적으로 다루면서도 극 전체를 관통하는 환자의 고통, 명의의 조건, 그리고 안락사라는 목적인 에피소드가 시청자에게 질문 거리를 던지는 데 그 매력에 있다.

과하면 육하지만, 막상 없으면 섭섭한 로맨스까지 살짝 가미하며 완벽한 듯 보이는 ‘의사요한’에도 물론 아쉬운 점들은 보인다.

개중 원작인 일본 소설(구사카베 요의 ‘신의 손’)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이 특히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일본 히어로극들이 대부분 인위적인 극성을 띠는 특성은 ‘의사요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목직한 메시지를 다루는 것 자체는 좋지만,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고민을 강요하는 듯한 전개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 /연습뉴스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소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름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팔도밥상 스페셜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웰컴2라이프(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정재영의 이수in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2	50 미니다큐(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름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월드컵 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켓 세상에 이련일이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스트레이트	00 리틀 포레스트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05 문화콘서트 난장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웰컴2라이프(재)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크(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로보카 폴리	12:10 EIDF 2019-다큐 속 무형유산	19:00 제로니모 스티턴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발리: 천상의 올림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10 EIDF 2019-예술하다 - 사탄과 아담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8:00 똥덩어리 유치원1~2	14:45 로보카 폴리(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몬카트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색다른 여름 남부 프랑스 1부 연제나 로망 프로방스>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00 마사와 곰	15:45 출동! 슈퍼왕스(재)	21:50 EIDF 2019-동물들 만나다
09:15 출동! 슈퍼왕스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버디, 인생의 동반자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3:20 EIDF 2019-다시 보는 EIDF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똥덩어리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36년생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48년생 적절한 방안을 분명히 찾게 되리라. 60년생 기존의 판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쓰라림이 보인다. 72년생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84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또 속는 우를 반복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23, 11	42년생 교체 해 주어야 진부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할 수 있다. 54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66년생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적인 극성을 띠는 것이 낫다. 78년생 단순해야 집중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90년생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행운의 숫자 : 16, 66	37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49년생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61년생 맹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하는 것이 좋다. 73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 85년생 가지치기를 잘 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5, 67	39년생 제만 사정을 차치하고 일에 몰두하는 것이 좋다. 51년생 걱정할 바가 아니니 앞만 보고 나가도 된다. 63년생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다. 75년생 분수에 맞게 임해야만 복도 따르는 법이다. 87년생 잘만 수용한다면 좋은 기회로 연결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3, 08	38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면서 실속이 있다. 50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시의 적절하게 쓰게 된다. 62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74년생 상부상조 하라. 86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43	40년생 특별히 형태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2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 64년생 구연으로 인한 염보가 깊으리라. 76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 88년생 처지와 정황을 감안하여 처신하자. 행운의 숫자 : 89, 44
43년생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 55년생 말잡지 않은 모양새가 되더라도 의연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79년생 대지 위의 초목은 폭풍우를 맞고 강해지는 법이다. 91년생 밝고 활기차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8, 29	44년생 초기 계획과는 약간 다르게 이행 될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니라. 68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때다. 80년생 꿈에 횡재를 보았다면 현실이 될 수도 있느니라. 92년생 현저한 변화에 놀랄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9, 91	41년생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을 세심히 살펴보자. 53년생 최소한의 요건에 맞추도록 하라. 65년생 두루 살펴보고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77년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89년생 육식을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 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행운의 숫자 : 57, 86	45년생 지난 날 언행 했던 바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니라. 57년생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69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숙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81년생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93년생 자기 확신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76, 93	43년생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 55년생 말잡지 않은 모양새가 되더라도 의연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79년생 대지 위의 초목은 폭풍우를 맞고 강해지는 법이다. 91년생 밝고 활기차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8, 29	46년생 미연에 방지하라. 58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70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나는 판세에 놓인다. 82년생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행운의 숫자 : 90, 81
47년생 힘든 고비가 남아 있으니 각오해야 한다. 47년생 일반적인 보편성과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59년생 누적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71년생 서둘러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83년생 일시적 편국이니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9, 58					